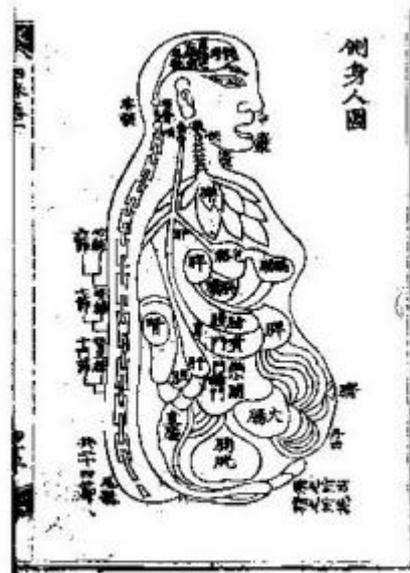


<그림 5> 《동의보감》의 신혈장부도



<그림 11> 《萬病回春》의 「側身人圖」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2000, 175쪽 재인용)

<표 13> 《동의보감》의 구성과 목차

1) 內景篇(附 修養·養老)
卷一: 身形·精·氣·神 卷二: 血夢·聲·言語·津液·痰飲 卷三: 五臟六腑·肝臟·心臟·脾臟·肺臟·腎臟·膽腑·胃腑 小腸腑·大腸腑·膀胱腑·三焦腑·胞·蟲 卷四: 小便·大便
2) 外形篇
卷一: 頭·面·眼 卷二: 耳·鼻·口舌·牙齒·咽喉·頸項·背 卷三: 胸·乳·腹·臍·腰·脇·皮·肉·脉·筋·骨 卷四: 手·足·毛髮·前陰·後陰
3) 雜病篇
卷一: 天地運氣·審病·辨證·診脈·用藥·吐·下·汗 卷二: 風·寒上 卷三: 寒下·暑·濕·燥·火 卷四: 內傷·虛勞 卷五: 癩亂·嘔吐·咳嗽 卷六: 積聚·浮腫·脹滿·消渴·黃疸 卷七: 疥瘡·溫疫·邪祟·瘡疽上 卷八: 瘡疽下·諸瘡 卷九: 諸傷·解毒·救急·怪疾·雜方 卷十: 婦人 卷十一: 小兒
4) 湯液篇
卷一: 湯液序例·水部·土部·穀部·人部·禽獸部 卷二: 魚部·蟲部·果部·菜部·草部上 卷三: 草部下·木部·玉部·石部·金部
5) 針灸篇

<동의보감 서>

… 한편 經典의 구절을 따다가 각기 다루어 자기의 학파를 내세움으로써 의학책은 더 많아졌으나 의술은 더욱더 애매해졌다. 그리하여 『靈樞』의³⁾ 본래의 뜻과 거리가 멀어졌다. 서투른 의사들은 깊이 이치를 알지 못하고 혹 『內經』의 말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나 옛날 방법에만 매달렸을 뿐이지 變通해서 쓸 줄을 몰랐다. 또 취사선택해서 그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드디어 죽이는 일이 많았다.

宣宗王은 몸조리를 하는 방법으로써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의학에 관심을 두고 백성들이 병으로 앓는 것을 걱정하여 병신년(1596년)에 太醫로 있던 許浚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요즘 조선이나 중국의 의학책들은 모두 변변치 않고 보잘 것이 없는 抄錄들이므로 그대는 여러 가지 의학책을 모아서 좋은 의학책을 하나 편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사람의 병은 다 몸을 잘 조섭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므로 수양하는 방법을 먼저 쓰고 약과 침, 뜸은 그 다음에 쓸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처방이 雜하므로 되도록 그 요긴한 것만을 추려야 할 것이다. 산간 벽지에는 의사와 약이 없어서 일찍 죽는 일이 많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약초가 많이 나기는 하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 이를 분류하고 지방에서 불리는 이름도 같이 써서 백성들이 알기 쉽게 하라.”

許浚은 儒醫 정작과 太醫 楊禮壽, 金應鐸, 李命源, 鄭禮男 등과 함께 編輯局을 설치하고 책을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대략적인 체계를 세웠을 때 정유년(丁酉年, 1597) 난리를 만나 의사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편찬은 할 수 없이 중단되었다. 그 후 선종왕이 또 허준에게 혼자서 편찬하라고 하면서 국가에 보관하였던 의학책 500여 권을 내주면서 참고하라고 하였다. 편찬이 아직 절반도 못 되었는데 선종왕은 세상을 떠났다. 새 왕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庚戌年(1610년)에 비로소 이 사업이 끝났다. 이 책의 이름을 『동의보감(東醫寶鑑)』이라고 지었으며 모두 25권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곧 왕에게 보이니 높이 평가하면서 말하기를 “陽平君 허준은 일찍이 선종왕에게서 의학책을 편찬하라는 특명을 받고 여러해 동안 깊이 연구하였다. 심지어는 옥중과 유배살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열매로 지금 편찬을 끝냈다. 생각하면 선종왕이 편찬할 것을 명령한 책이 내가 왕위에 오른 때 끝내었으니 비감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허준에게 좋은 말 한 필을 주면서 그의 功勞를 表彰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급히 內醫院에 명령하여 出版廳을 설치하고 인쇄하여 국내외에 널리 배포하라고 하였다. 提調로 있던 李廷龜에게 序文을 써서 책머리에 신도록 명령하였다. 정구는 생각하건대 元氣가 한번 흩어지고 6기가 조화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병이 생겨서 백성들이 禍를 입게 되는데 醫藥品으로 죽어 가는 환자를 救援하는 것은 실로 정치에서 첫째가는 일로 될 것이다. 그러나 醫術은 책이 아니면 기재할 수 없으며 책은 잘 선택하지 않으면 자세하게 쓸 수 없고 폭 넓게 수집하지 않으면 그 理致가 명료하지 못하며 널리 배포하지 않으면 혜택이 널리 미치지 못한다. 이 책은 옛날이나 지금의 의학책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였고 여러 사람의 이론을 절충하여 기분을 찾아서 근원을 해명하였으며 綱領을 세우고 요점을 따서 자세하면서도 간결하며 간결하면서도 빠진 것이 없다. 內景과 外形 편으로부터 시작하여 雜病의 여러 가지 처방에 이르기까지 분류하였으며, 脈訣, 症候論, 藥性, 治療法, 攝生에 대한 요점과 침과 뜸에 대한 모든 규범(規範)에 이르기까지 빠

3) 의서, 내경 구성 부분의 하나, 경락과 침구의 내용이 아주 자세함.

집없이 다 써놓았다. 그리고 체계가 정연하여 복잡한 것이 없으므로 환자의 증상이 비록 千百가지라 할지라도 치료에서 補하고 瀉할 것과 빠리하고 늦게 하는 것 등이 모두 폭넓고 적절하게 응용되도록 써놓았다. 구태여 옛날 古典이나 근래의 여러 학설을 광범히 참고하지 않아도 病症 分類에 따라 처방을 찾으면 여러 가지를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약을 쓰면 꼭 들어 맞는다. 진실로 의사들에게는 보배로운 거울이며 백성들을 구원하는 좋은 법으로 될 것이다. 이것은 모두 선종왕이 가르쳐 준 묘책이고 현재의 왕이 계승한 높은 뜻이다. 백성에게 혜택을 주고 만물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과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고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한가지이기 때문에 잘하는 정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어진 사람이 마음을 쓰면 그 혜택이 널리 미친다”고 하였으니 과연 그렇다고 할 만하다.

萬曆 39년(1611) 辛亥年 4월에 崇祿大夫 行吏曹判書 겸 弘文館 大提學 藝文館 大提學知經筵 春秋館 成均館事 世子左賓客(臣) 李延龜奉 教謹序

<동의보감 집례>

A)정유재란(선조 30년, 1597년)이 발생함으로써 편찬사업에 관여하였던 인물들이 흩어짐으로써 일이 드디어 그로 멈추었다(『동의보감』, 권1 집례).

B)난 후에 선왕(선조)이 또 허준에게 교시하였다. 홀로 찬성을 위해 內藏 방서 오백권을 내어 주시며 이를 고증의 근거 자료로 삼도록 하였다. 찬성이 반도 이루어지기 전에 임금이 돌아가셨다. 성상 즉위 삼년 경술(광해군 2, 1610)에 허준이 비록서 일을 마쳤다(『동의보감』, 권1 집례).

C)왕절제가 말하기를 東垣의 北醫는 羅謙甫가 그 법을 전수하여 江浙에 전해졌고, 丹溪의 南醫는 劉宗厚가 그 학을 대대로 하여 陝西에 율리었으므로 의학에는 남북에 이름이 상존한다. 우리나라는 동쪽의 벽촌에 있지만 의학의 도가 실처럼 끊어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의학은 또한 東醫라 이를 만하다. 鑑은, ‘만물을 환히 비쳐서 그 형태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원나라 羅謙甫의 저서 『衛生寶鑑』, 명나라 龔信的 저서 『古今醫鑑』이 모두 鑑으로 이름 지어진 뜻이 여기에 있으므로, 이제 이 책을 펼쳐서 한번 보면 질병의吉凶과 輕重을 거울을 들여다보듯 환할 것이므로, 마침내 東醫寶鑑이라 명명한 것이고 옛사람들의 남긴 뜻을 본받은 것이 옳습니다(『동의보감』, 권1 집례).

기는 통해야 한다.

D)지금 이 책은 먼저 내경의 정, 기, 신, 장부로 내편을 삼고, 다음으로 외경의 두, 면, 수족, 근, 맥, 골, 육으로 외편을 삼고, 또한 五運 六氣, 사상(望·聞·問·切), 삼법(吐·汗·下), 내상, 외감, 제병의 증상을 나열하여 잡편으로 삼고, 끝머리에 탕액, 침구를 덧붙여 그 변통의 이치를 다 밝혔 다.(『동의보감』, 권1 집례).

E)천지의 정기가 만물의 형체를 화하고, 부의 정기는 혼이 되고 모의 정기는 백이 된다. ...10달에는 형체가 만족되면서 모자가 서로 나누어진다. 달을 채우고 나면 부귀하고 장수하며 달이 부족하면 가난하고 일찍 죽는다. ... 정액을 잘 간직하라. 음양을 보양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양기를 잘 간직하고 굳건히 하는 것이다. 양기가 강하기만 하고 잘 간직되지 못하면 음기가 결국 끊어진다. 음기가 고르고 양기가 잘 간직되어야만 정신이 온전해진다. 음과 양이 서로 갈라지면 정기가 끊어진다(『동의보감』 권1. 내경편 정).

<조선중기 의학, 허준 탄핵 자료 ; 2013.11.28>

A)사간 宋錫慶이 아뢰었다. “성후의 미령하심이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되니 약을 쓰는 일은 매우 긴요하고도 중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陽平君 許浚은 首醫로서 자기 소견을 고집하여 경솔히 독한 약을 썼으니 죄를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 엇그제 동료들에게 발론하니 모두들 ‘허준의 죄는 국인이 모두 알고 있다. 이는 지극히 공정한 논평인데 누가 감히 이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다음날 齊坐하여 논계하기로 이미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선조실록』 권218, 40년(1607/萬曆 35년) 11월 13일 임인).

B)대신이 御醫 許浚 등을 데리고 들어가서 진찰을 하였으나 氣候는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신들이 모두 울면서 나왔다. 조금 있다가 상이 薨하였다(『광해군일기』 권1, 즉위년(1608/萬曆 36년) 2월 1일 무오).

C)양사가 허준을 율에 의거 정죄하고 홍여순을 문외 출송시킬 것을 계청하니, 답하기를, “허준은 이제 추국할 만한 실정이 없다. 이미 삭직시켰으니 문외로 출송시키도록 하라. 홍여순은 파직시키라.” 하였다(『광해군일기』 2권, 즉위년(1608 무신 / 명 만력(萬曆) 36년) 3월 17일(갑진).

D)사간원이 연계하여 조의를 파직하고 허준을 위리 안치하라고 청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허준은 옛날 내가 어렸을 때에 많은 공로를 끼쳤다. 근래 나의 질병이 계속되고 서울에 있는 의원들의 술업이 고루한데도 감히 그를 방환하지 못하는 것은 공론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가 이런 기별을 들으면 의당 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이니 죄를 가중할 필요는 없다. 번거로이 논집하지 말라.” 하였다(『광해군일기』 15권, 1년(1609년/萬曆 37년) 4월 24일 을해).

E)전교하였다. “許浚은 扈聖功臣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근래에 내가 마침 병이 많은데 內局에는 노성한 宿醫가 적다. 더구나 귀양살이한지 해가 지났으니, 그의 죄를 징계하기에는 충분하다. 이제 석방하는 것이 가하다(『광해군일기』 권22, 1년(1609/萬曆 37년) 11월 22일 기해).

F)전교하기를, “陽平君 許浚은 일찍이 先朝 때 醫方을 撰集하라는 명을 특별히 받들고 몇 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심지어는 유배되어 옮겨 다니고 流離하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여 이제 비로소 책으로 엮어 올렸다. 이어 생각건대, 선왕께서 찬집하라고 명하신 책이 과인이 계승한 뒤에 완성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비감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 허준에게 熟馬 1 필을 직접 주어 그 공에 보답하고, 이 方書를 내의원으로 하여금 局을 설치해 속히 印出케 한 다음 중외에 널리 배포토록 하라.” 하였다. 【책 이름은 《東醫寶鑑》인데, 대개 中朝의 고급 방서를 널리 모아서 한 권에 모은 다음 분류하여 책으로 만든 것이다.】(『광해군일기』 권32, 2년(1610/萬曆 38년) 8월 6일 무인).

<조선중기 의학, 양예수의 자료 ;2013, 11. 28>

A)정원에 전교하기를, “세자가 병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에 조종조에서 특별히 大赦를 행한 일이 있었는가? 《일기(日記)》 2651) 를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하고, 조금 있다가 또 전교하기를, “세자의 병세가 위중하니 옥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 마음이 망극하여 말하는 것이니 사관을 나누어 보내어 대신들에게 의논케 하여 아뢰도록 하라.”하니, 영중추부사 상진, 영평 부원군 윤개, 영의정 윤원형, 좌의정 이준경, 【**엄숙하고 의연한 기상은 있으나 사람을 포용하는 도량은 없었다.**】 우의정 심통원 등이 아뢰기를, “상의 마음이 망극하신데 신들이 어찌 감히 다른 말씀을 올리겠습니까.” 하였다. 【**오직 심통원만이 국가의 강상에 관련이 있는 일은 경솔히 논할 일이 아니라는 의논을 드렸다.**】 이때에 동궁이 편찮은 지 오래되었는데 내의 양예수(楊禮壽)가 모시고 진찰하고 약을 쓰면서 다른 의원은 알지 못하게 한 것은 그 공을 독차지 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위독한 지경에 이르러 일이 어쩔 수 없게 되어 버리니 사람들이 다 통분스러워 했다. 『명종실록』 권29, 18년(1563) 9월 20일 을미).

B)전교하기를, “내의 孫士鈞과 楊禮壽는 主簿에 오랫동안 정채되었다. 이번 정사에서는 判官에 올

려 차임시키고, 金世佑도 東班의 주부에 제수하라.”사신은 논한다. 우리 나라의 東西班 正職은 兩科 및 門蔭의 사람이 한다. 평민과 서얼 출신들 중에서 조종조에 있어 혹 동반에 서용된 자가 있었다. 그러나 한두 사람에 불과했을 따름이었다. 지난번에 내의인 柳之蕃·金允闇이 이미 높은 벼슬에 올랐는데, 손사균과 양예수가 판관에까지 승진하고, 김세우도 함께 주부에 제수되었다. 하루에 세 사람이 함께 동반에 올라 사대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조정에 서게 되었으니 벼슬이 함부로 주어지고 명분의 혼탁됨이 이에 이르러 극에 달한 것이다. 【예수는 계해년 가을에 홀로 동궁을 모시면서 약을 잘못 써 돌아가시게 하는 변이 일어나도록 하였는데도 권력에 빌붙어 그 죄를 면하고 도리어 승진되니 많은 사람들이 더욱 분통해 하였다.】 하였다. 손사균을 상의원 판관으로, 양예수를 예빈시 판관으로, 조희문(趙希文)을 홍문관 수찬으로, 김세우를 사옹원 주부로, 이경명(李景明)을 예문관 봉교로 삼았다. 『명종실록』 권30, 19년(1564년) 12월 21일 기축)

C)喪人인 內醫 楊禮壽는 술업에 정통하였으므로 제조의 계사에 따라 서울집에 와서 있게 하고 요미(料米)를 주라고 명했는데 양예수가 상소를 올려 여묘살면서 복(服)을 마치겠다고 하니, 답하였다. “너를 서울집에 와 있으라고 명한 것은 기복(起復)에 비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의 뜻이 이미 이와 같으므로 이에 너의 소청을 윤택한다.” 『선조실록』 권12, 11년(1578) 7월 4일(계축)

D)약방 도제조 김응남이 아뢰기를, “동궁 患候가 오래도록 회복되지 아니하고, 이질(痢疾)의 빈도는 조금 감하여진 듯하나 脾胃가 크게 손상되어 복통이 그치지 않으며, 하루에 드시는 것이 두세 수저에 불과하고 오래도록 낫지 않아 원기가 더욱 탈진한 듯하니, 매우 민망스럽습니다. 의관 중에 楊禮壽가 의술이 정통하고 경력도 많은데 현재 중전을 호위하러 海州에 가 있으니 다른 의관을 대신 보내고 즉시 올라오도록 하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답하기를, “계사는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요즈음 동궁의 증세는 좋아지는 듯하고 내전은 슬픔속에 있으니 병이 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 된다. 해주에는 다른 명의가 없으니 우선 그대로 두어라.”하였다. 『선조실록』 권62, 28년(1595) 4월 25일 정묘)

E)상이 別殿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왕세자가 입시하고, 약방 제조 金應南, 부제조 吳億齡, 醫官 楊禮壽·許浚·李公沂·朴春茂·沈發·金榮國이 입시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상의 증후를 자세히 알아야 침을 놓을 수 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왼쪽 귀가 심하게 울리고 들리지도 않으므로, 침을 맞지 않으면 낫지 않을 듯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다.”하고, 또 이르기를, “전에 머리가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 지난 가을에 침을 맞은 뒤부터 아픈 증세는 덜한 듯하나 귀울림은 여전하다.”하고, 또 이르기를, “왼손의 손등에 부기가 있는 듯하고 손가락을 당기면 아파서 침을 맞으려 한다. 왼쪽 무릎도 시고 아파서 잘 걸지 못하므로 침을 맞아 맥을 트려고 한다.”하였다. (『선조실록』 권75, 29년(1596) 5월 11일 정축)

F)知事 楊禮壽를 弔祭하는 예조의 公事에 대해 우승지 金時獻에게 賻儀를 보내라고 전교하였다. 양예수는 醫官인데 醫術로 당세에 유명하였다. 그의 아우 양지수(楊智壽)도 의관으로 임진란 때 적의 포로가 되었었는데, 꾸짖으며 강에 투신하여 죽었다.】 (『선조실록』 권132, 33년(1600) 12월 1일 경오)